

마크 제닝스 박사, 마크, 강의 17, 마가복음 10:32-11:11, 수난예언, 승리의 입성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마크 제닝스 박사와 그의 마가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0:32-11:11에 대한 세션 17입니다. 수난 예언, 승리의 입성.

안녕하세요, 마가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부자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그는 계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을 때, 그는 낙담하여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패턴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살펴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의 가르침이 끝나가고 예루살렘 입성에 다가가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 10장을 계속 읽어서 32절에서 45절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구조를 조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수난 예언을 볼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언하셨고,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잠시 후에 언급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또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에 익숙해진 것을 볼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마음 속 행동과 예수님이 제자도, 그분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사이의 단절, 긴장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했듯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보고 있다고 생각하듯이, 마가는 제자들에 대해 계속해서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 대해 한 긍정적인 진술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종의 패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의 패턴에 대한 대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연극이 다시 펼쳐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먼저 이 세 번째 예측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 32절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고, 예수께서 그들보다 앞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은 놀랐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열두 제자를 다시 따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들으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요, 그들은 그를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흘 후에 부활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로부터 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이런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이 세 번째 수난 예언에서, 나는 그것이 다른 두 가지와 매우 유사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가 가르치는 것을 요약한 진술이고, 이것은 그것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다른 두 가지를 다루지만,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본 첫 번째 수난 예언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거부할 세 그룹을 식별했습니다. 장로들, 책임을 맡았던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두 번째 열정 예언은 인자의 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언으로, 예수가 인간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우리가 그 순간에 논의했듯이,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인간의 손에 스트레스로 넘겨주는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여기서 일어났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독특한 진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이방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유일한 진술이며, 그것은 새로운 측면이며, 특히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죽인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자주 제기되는 것 중 하나는 이러한 진술이 얼마나 진짜인가 하는 것이고, 학자들은 이것이 아마도 마가가 예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자신의 복음서에 다시 삽입한 것일 수도 있고, 초기 교회가 이 문서에 삽입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으며, 우리는 이미 그 중 일부를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인자라는 사실은 넘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교회가 받아들이는 칭호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사용하시는 칭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신 죽이는 것에 대한 이 언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죽이는 대신 나중에 삽입된 것이라면 십자가 처형 언어가 언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또한 3일 후의 문제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반면 후기 교회에서는 3일 후가 아닌 3일 후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이 부활을 언급하면서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가가 이것을 수정한 것처럼 생각하더라도 마가에서 일어나는 일의 순서는 아닙니다. 마가가 이 진술을 수정하거나 그의 복음서에서 나중에 나오는 것을 끌어내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예언에서 제시된 사건의 순서는 마가 복음서에서 실제로 전개되는 순서와 같지 않으며, 그는 그것을 재정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역사성은 예수가 자신의 가르침을 반영한 이 진술이나 요약 진술을 한 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인자가 넘겨지는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에피소드를 살펴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고, 예수는 그들보다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랐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한 그 진술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놀랐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라움은 종종 군중의 반응이었고, 두려움은 복음서 전반에 걸쳐 요소로 작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중 하나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8장 이후로 예수는 예루살렘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적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이 길로 가고 있으며, 적어도 군중 사이에서는 이 메시아적 인물, 주로 갈릴리와 몇몇 이방인 땅에 머물렀던 이 인물이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내밀면서 메시아적 열정이 없다면, 이제 그는 그 도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움이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측면에서 두려움보다 그들 앞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순간을 가리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조차도, 제 생각에, 이 에피소드가 야고보와 요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는데, 그들이 왕국의 도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에피소드를 살펴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방금 인자가 기본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들의 결정권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요약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과 그들이 그를 따르는 측면에서 보는 것 사이에 단절이 있다는 또 다른 예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35절에서 4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께 청하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당신께 무엇을 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영광 가운데서 당신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할 수 있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요 내가 받는 세례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요, 오히려 그것은 준비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나머지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맥락을 보게 되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무언가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제 마태도 이 에피소드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서 그것을 보지만, 실제로 요청을 제시한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태가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응답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통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마가가 요청의 본질을 포착한 반면, 마태는 본질과 과정을 포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은 두 기록 모두에서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마태는 요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야고보와 요한이 이 요청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요청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들은 예수님께 먼저 무언가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요청하든 약간 모호합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당신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제임스, 존, 피터가 아니라 제임스와 존이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특별히 지적되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 독특한 영예와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서 그의 왕국에 오실 때 어떻게 독특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영광이나 부활에 관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변형에서 비롯된 메시아적 통치에 관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방금 본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종말론적 종말에 다다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영광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할 때, 그들이 베드로를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가 이 특별한 세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았을지라도, 그들의 걱정은 베드로에 대한 것이 아니며, 저는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징후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체적인 요청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도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선생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마치 그들이 실제로 구체적인 것을 요청하기 전에 예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도록 동의해 주시도록 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떤 종류의 위대한 성명을 하게 하려고 시도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원한다면, 만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너무 긴밀하게 연결하고 싶지 않으니 여기서 참아주세요. 하지만 헤롯이 춤을 추면 소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장대한 성명을 내놓고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이런 감각이 있는데, 그 악의적인,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대한 맹세 중 하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 요구가 예수가 지켜야 한다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 답은 우리가 너희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좌석이 메시아 연회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이 왕국 언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은 기본적으로 왕좌의 방을 묘사한 것이고, 그들은 왕의 명예로운 자리에 앉고 싶어합니다.

물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영예를 얻습니다. 그것은 보통 상속자, 수석 고문 또는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될 아들을 위해 예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왼쪽이 고대 문화에서 오른쪽보다 낮은 지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여전히 왼쪽에서 분명히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예로운 자리를 원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발걸음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세례 받는 세례로 너희도 세례 받을 수 있느냐? 이 잔과 세례의 은유는, 여기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잔, 그리고 우리는 겻세마네 동산에 들어갈 때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할 것이지만, 잔은 고난과 심판과 진노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세례 언어는 물과 심판과 관련된 언어가 몇 가지 있지만,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생각해 볼 때, 심판의 모티브가 있는 물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상징적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언어도 그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컵만큼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총만함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잔을 마실 때, 지금 일어나는 내적 존재가 있습니다. 세례에서, 외적 주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은유가 예수가 말씀하시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겪게 될 일의 완전한 경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의 일부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는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수사적 질문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이는 확실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정적인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견딜 수 있는지 물으셨고,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순교나 그로 인해 오는 고통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굳건히 설 수 있다고 확신하는 듯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시 보게 될 내용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힘을 확신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흥미롭습니다.

첫째, 그는 그들의 진술을 입증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요, 너희는 내가 세례 받는 세례로 세례 받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무리가 마음의 완악함에 더 가깝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아 왔음을 알고 있으며, 예수께서 목자가 쓰러지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확인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실제로는 희망적인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의 일부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할 것이고, 그 왕국의 사역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야고보가 지금으로부터 몇 시즌 후에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립바 1세에 의해 순교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훨씬 더 오래 살겠지만, 그는 확실히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신 진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그것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의 진술에서도 그들이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목하세요. 때때로 듣지 않기 힘든, 두 사람이 함께 노는 방식에서 어떤 성찬적 언어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하면서 그들이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며, 누가 존중받고 누가 존중받지 못하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예수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사람을 언급한 다른 유일한 때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는 아이러니를 놓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는 정확히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그래서 아마도 거기에도 제자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누가 실제로 예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영광을 받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을 가지고 있고, 물론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이것을 듣고, 41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희생적 제자도와 종의 리더십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분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이 분노한 이유는, 글썄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서에는 옳은 것을 얻고 있는 제자 집단이나 야고보와 요한이 틀렸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명예를 위해 경쟁하려고 하고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내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몇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이 자기 이익, 자만심, 거만함을 반영하는 일을 하는 패턴을 보았고, 그런 다음 예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제자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베드로가 메시아에 대해 고백했을 때에도 그것을 보았고, 그런 다음 예수께서 그 고백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 따르는 것,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래서 비슷한 일이 42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통치자로 여겨지는 자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행사함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너희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래서 물론 이 위대한 역전으로 시작하며, 그는 이방인들을 이방인 땅에서 리더십이 어떤 모습인지 대조하는 데에 대비되는 인물로 사용합니다. 토라, 율법, 선지자의 지시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땅에서, 아시다시피, 제2성전 유대교에 대한 이해, 이교도적 이해와 사고의 표현인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권력과

높은 지위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의 통치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흥미로운데, 제 생각에는 그들이 실제로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저 여겨지거나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며, 모든 사람에 대한 그들의 신성한 권위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서, 그가 이 이방인 집단, 즉 구약성서, 즉 히브리 성경의 가르침이 없는 사람들을 비판할 때, 그들의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방금 요청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금 높은 지위에 있기를, 왕좌의 방에서, 통치하는 자리에서 그 명예로운 지위에 있기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행동은 이방인 통치자들이 행동하는 것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명예를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추구하고, 그 책망은 농치기 힘들겠지만,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큰 반전이 있습니다. 위대해지고 싶은 사람은 하인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이 왕국 윤리에는 역 현실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내면이 아닌 외면적 초점, 복종, 봉사 초점입니다. 권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의 주장을 입증하는 중요한 진술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왜냐하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위한 그 대속은 마가복음과 예수가 자신의 이해에 대해 가르친 것 중 가장 강력한 진술 중 하나이며, 인자는 넘겨지고, 거부당하고, 고통을 받고, 죽고, 3일 후에 부활해야 한다는 예수의 이해는 대속적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대속은 노예의 대가를 치르고, 자유의 대가를 치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 인자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인물이 칭찬받고, 찬양받고,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결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이곳에 온 이유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예수님이 다니엘, 인자의 인물을 취하여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모티프와 연관시켰다는 이 명확한 진술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 52장과 53장에는 섬기러 온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쏟고, 죄를 위한 제물로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 인물은 우리의 고통을 받고, 우리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찢리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짓밟힙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형벌이 그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그의 상처로 치유되고, 치유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돌리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 심판과 이 형벌을 받는 이 종의 모습에 대한 이 그림은, 자신에게는 합당하지 않지만, 저는 이것이 1045와 다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통받는 종의 모티브에 대한 인용문이 아니라, 이것이 요약된 모습이라는 것을 잘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며, 예수께서 인자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인자에 대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는 고난을 당하는 인자에 대해 그가 많은 사람을 섬기고 대속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45를 가지고 예수께서 인자에 대한 수난 예언에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 보면, 예수께서 인자로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 안에 두 가지가 섞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그의 가르침의 기초는 바로 그 혼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한다는 것은 메시아가 한 것처럼, 인자가 하는 것처럼, 즉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46절에서 52절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마지막 치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먼 사람의 치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치유가 될 것입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는 흥미진진한데, 예수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과 제자도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지나 수난주간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흥미로운 요소들입니다. 46절, 그들이 예리코에 왔고, 그가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예리코를 떠나실 때, 디매오의 아들인 눈먼 거지 바디매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아,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먼 사람을 불러서, 용기를 내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외투를 벗어던지고 뛰어올라 예수께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느냐? 라보니, 눈먼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라보니는 랍비라고 말하는 고귀한 표현입니다.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는 즉시 볼 수 있었고 길에서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나는 이 마지막 기적에 몇 가지 흥미로운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예리코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17마일 떨어진 곳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먼 사람의 치유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실명이 영적 통찰력과 어떻게 약간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볼 수 있고 사람과 나무를 구별할 수 없는 눈먼 사람의 치유를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토론은 그 치유가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과 결합되었을 때, 그들이 조금은 보고 있었지만 아직 명확하게 보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 기적이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은유에 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약간의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부르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의 이름, 바디매오, 심지어 티매오의 아들의 이름을 안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디매오는 또한, 그렇게 작동할 방식은 티매오의 아들을 나타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몇 번은 얻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가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인물이 마가가 쓰고 있는 그룹에 알려진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이유로 바디매오를 언급하거나, 그의 이름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단순히 사람의 상태만 알고 이름은 모르는 다른 기적을 생각할 때와는 대조적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여기서도 살펴보고,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두드러진 것이 있는데, 바디매오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는 그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마가복음에서 다윗의 조상에 대한 언급은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1235편은 예외일 수 있는데, 예수께서 시편 110편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대답하시는 부분인데, 다윗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은 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 언급되지 않는데, 저는 이것이 이 이야기의 역사성을 강화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다윗의 아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진술입니다. 그것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다윗의 혈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신이 다윗의 아들, 다윗의 상속자, 오실 분, 메시아라는 믿음으로 그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다윗의 아들, 예수를 부르며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은 오실 분이 치유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 혹은 치유가 수반될 것이라는 믿음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은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을 부르며 메시아적 주장을 하고 있고, 침묵하라는 명령이 있지만, 침묵하라는 명령은 예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했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다윗의 아들인 거지 바디매오가 있는데, 군중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실제로 정확하고 옳은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비를 베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중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명예, 수치, 사회적 문화 속에서 군중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않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를 길에 앉아 있는 눈먼 거지로 보고, 이 위대한 운동에서 메시아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국 승리하는 것은 그의 끈기입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다윗의 아들아"라고 외치지만,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고, 제자들이 그를 데려옵니다. 그의 흥분을 주목하세요. 그는 외투를 벗어던지고 즉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눈먼 바디매오와 야고보와 요한의 상호작용을 주목하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에게 무언가를 원하며 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눈먼 바디매오는 다윗의 아들을 부르며,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하는 가운데, “나는 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나는 영광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시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력과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저는 믿습니다. 제 불신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보고 싶고, 믿고 싶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기적은 독자를 그 방향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당신의 길로 가라,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치유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근육질의 반응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사람의 끈기는 근육질의 반응이었습니다. 군중이 그에게 눈먼 거지에게 머물러 있고 예수를 부르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끈기는 그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당신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거지가 무엇을 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는 우리가 마가 복음에서 내내 보았듯이 즉시 볼 수 있었고, 길에서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당신의 길을 가는 선택권을 갖게 된 이 사람은 자신에게 가능한 모든 선택권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내리는 선택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보여준 것에 대항하여 제자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52절의 끝은 우리가 참여해 온 복음의 이 부분을 정말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준비하고 예언하신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로 들어가면, 이야기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예루살렘으로의 이동입니다.

11장과 11~15장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성전 사이에 긴장이 있고, 성전 지도부는 다음 네 장의 모양을 많이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에 대한 질문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악한 소작인에 대한 비유를 볼 것입니다. 또는 책망이나 함께 오는 권위에 대한 것입니다.

13장 1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우 불길한 방식으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체포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성전에 있을 때 왜 그를 체포하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성전을 파괴했다고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조롱하는 것에서도, 그들은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진술에 대해 조롱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장에서 1장까지 이어지는 이런 연결이 있고, 수난을 거쳐 14장을 거쳐 15장까지 이어지며, 예수의 죽음, 권세, 성전 권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승리의 입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몇 마디만 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을 보면 여섯 구절입니다. 그들이 올리브 산 근처의 베트파게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다다랐을 때, 그는 제자 두 명을 보내어 앞서 마을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데, 아무도 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여기로 가져오시오. 누가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묻는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 여기로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거리에서 문에 묶인 어린 나귀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풀었고,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니? 나귀를 푸는 거야.” 그들은 예수가 말한 대로 그에게 대답했고, 그들은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나귀를 예수에게 끌고 와서, 그들의 옷을 그 위에 던졌고, 그는 그 위에 앉았습니다.

이 첫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은 6절과 8절 사이의 다리입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예수께서 이 컬트를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려는 데 매우 의도적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것은 그의 선택에 따른 것입니다. 준비의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14장에서 매우 유사한 일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을 위한 방을 얻는 것과 함께요.

실제로 마가복음 11장과 마가복음 14장의 처음 여섯 구절, 12절부터 16절까지 살펴보면 언어와 구조에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두 서사 사이에는 확실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서사 사이에는 함께 읽어야 할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읽을 때 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수난의 서론, 곧 일어날 일의 서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마가는 우리에게 다음 사건에 대한 많은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마크는 보통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크의 스타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11장에 이르자 그는 극적으로 속도를 늦춥니다. 수사적 효과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마지막 몇 순간 동안, 우리는 많은 세부 사항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 실제로 움직이는 곳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놓치기 어려운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항상 이동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항상 움직이셨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항상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세례자 요한에 대해 생각해 보더라도, 그것은 길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길, 이 길, 이 길 위에 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이 길에서, 길을 준비하는 곳으로 기대되는 곳에서, 그는 위대한 절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루살렘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최근에 와서 예수에게 반대해 온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예수께서 어떻게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의도적인 본질을 아주 일찍부터 봅니다. 그는 이 짐승, 어린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그가 이 나귀에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추측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립니다. 가세요, 들어가자마자 묶인 당나귀를 보실 겁니다.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당나귀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여기로 가져오라. 누가 너에게, 네가 이것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이것이 너의 대답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한다.

정확히 그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언적 통찰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께서는 환상을 보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당나귀가 있다는 예언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의 예언적 능력을 무시하지 않고, 나는 예수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과정을 미리 계획한 것을 더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짐승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람들이 이 당나귀가 풀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인물이나

신사가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시고 바로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적절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적절한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질문은, 왜 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가? 그리고 여기에는 온갖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들어간 방식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왕권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타고, 전쟁 말을 타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반영하는 이 아이디어를 타고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마가복음은 인용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인용했는데, 스가랴 9:9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암시된 것, 아니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명확히 표현된 것은 스가랴 9:9가 마을에 왔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9는 이 순간, 이 짐승을 타고 오는 이 위대한 종말론적 순간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9:9의 이 소망은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었고,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행위였으며, 이 그림 속의 관점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은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볼 때, 의도적인 성격이, 열왕기 상권에서 솔로몬을 따오든, 열왕기 하권에서 예후를 따오든, 스가랴 9:9에서 따오든, 아마도 둘 다 조금씩은 섞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것조차도 신성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점은 예수께서 순례자가 하는 방식, 즉 걸어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매우 상징적인 방식으로, 수난을 준비하는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은 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에 옷을 펼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밭에서 잘라낸 잎이 많은 가지를 펼칩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유래입니다. 이것은 영광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강력한 인물, 알려진 인물, 명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들어오고, 앞서 가는 사람들과 따라가는 사람들이 계속 같은 것을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신 분입니다.

다가오는 우리 아버지 다윗의 왕국은 축복받았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 호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호산나 선포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를 의미하지만, 이때쯤에는 당신이 순례자들에게 외치신 것에 대한 감각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군중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마치 구원이 온다라고 선포하듯 손바닥을 엮고 있는 것을 보기 전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모든 순례자들에게 인사할 만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아버지 다윗의 왕국이 축복을 받는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것은 바디매오가 다윗의 아들에 대해 방금 말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군중들이 이것을 선포할 때 무엇을 이해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들이 옷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엮은 반응조차도 그들이 예수님이 이 짐승에게 다가오면서 하고 계신 일의 일부를 알아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아버지 다윗의 왕국이 임할 때에도 축복이 있을 것이고, 메시아적 열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든 불완전하게 이해하든, 잘못 이해하든 아니든, 또는 그저 흥겨운 사람들과 순례자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맞이하는 것일 뿐이든,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의 독자로서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고 느끼셨고, 그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이, 왕국이 오고 다윗의 아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고 다음에 다시 다룰 마지막 부분은 11 절입니다. 매우 흥미롭고, 매우 절제된 구절입니다.

승리의 입성, 축하의 순간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짐승을 타고 예수가 들어오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그가 예루살렘과 성전 단지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첫 번째 장소는 성전 단지입니다. 모든 것을 둘러본 후,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는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갔습니다. 매우 절제되고 강조되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성전으로 갑니다. 마가는 그가 주변을 둘러보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인 주변을 둘러보았다는 단어는 신약에서 일곱 번 발견됩니다. 그 중 여섯 번은 마가복음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예레미야 7:11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과 매우 불길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예레미야 7장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7:11을 보면, 성전을 보고 평가하신 다음 그 위에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마크 제닝스 박사와 그의 마가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0:32-11:11에 대한 세션 17입니다. 수난 예언, 승리의 입성.